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4. 8. 28(목)		
배포일	2014. 8. 28(목)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880-5054, 9072)
담당부서	사무국 총무과	문의	총무과(880-5092, 5093)

## 서울대학교 제68회 후기 학위수여식

- 성낙인 총장 “공동선 위해 공헌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 되길”
- 한학자 성백효 선생 축사 연사로 초빙

- 서울대학교는 2014년 8월 28일(목) 오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68회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성낙인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공동선을 위한 지식의 공헌과 이웃과의 소통 및 경청, 도전을 즐거워하는 자세 등을 강조했다.
- 특히 성낙인 총장은 “최고의 지식은 사회봉사와 인류공헌을 위해 만들어 쓰이는 것이며, 훌륭한 인재는 지성과 함께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겸비한 ‘선한 인재’” 라며 “민족의 동량, 사회의 중심으로 드높은 자부심을 갖되, 지식과 열정을 공동선을 위해 공헌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가 되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어 성총장은 사회 곳곳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통의 역할, 이웃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미덕, 이웃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피스메이커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 서울대는 창의적 역량과 의지가 굳건한 선한 인재상과 오상지절((傲霜之節)의 기개를 지닌 선비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평생 한학연구에 매진해온 한학자 성백효 선생(69, 해동경사연구소장)을 축사 연사로 초빙하였다. 성백효 선생은 ‘논어집주’, ‘시경’, ‘대학’ 등 20여편의 유가경전을 완역하였으며, 한국고전번역원 명예교수와 전통문화연구회

부회장, (사)해동경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 성백효 선생은 “복을 누리는 사람보다 복의 터전을 쌓는 사람이 되어 달라” 며 “남들보다 잘 살겠다는 생각보다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자세가 필요하고, 겸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함으로써 모두의 표본이 되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달라” 고 당부했다.

□ 이에 앞서 서정화 서울대 총동창회장이 축사를 하며, 졸업생 대표로는 어려운 역경을 딛고 학업에 매진한 권은진씨(24, 자유전공학부)가 연설에 나선다. 권은진씨는 대한민국 인재상(2013)을 수상하고, 미래 한국을 빛낼 13인(2014)에 선정된 바 있다.

□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850명, 석사 989명, 박사 522명 등 총 2,361명이 학위를 받았다.

**\* 불임: 학위수여식사, 축사(서정화 총동창회장, 한학자 성백효 선생)**

## 1. 제68회 후기 학위수여식사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동안 이 곳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쌓아온 지식의 온축과 지혜의 성장이 하나의 매듭을 짓고, 소정의 학위를 수여받게 된 데 대하여, 모든 대학인을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문적으로 지도하고 교육해 주신 교수님들, 각별한 정성으로 여러분을 뒷받침해 주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사랑과 배려로 돌봐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학은 진리탐구의 전당이고 그 진리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거점입니다. 여러분은 수 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지식을 연마하고 그 지식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충실한 준비기간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재를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설렘과 기대를 갖고 애정 어린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자신만의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사회와 우리 국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세계화 시대에, 여러분은 전지구촌을 대상으로 여러분의 포부를 마음껏 펼치기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졸업은 한 단계의 매듭을 묶는 것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입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 여러분은 미래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도약대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갈 방향은 무엇이고, 뛰어오르는 상승은 어디까지일까, 우리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내외적 상황 속에서 미래는 그만큼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창조적 혁신을 꿈꾸는 지식인에게, 불확실성은 불안의 근거가 아니라 도전의 에너지입니다. 당장 길이 보이지 않을 듯이 보여도, 여러분이 내딛는 그 한걸음 한걸음이 모여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으로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여러분 앞에 다가올 불확실성과 도전을 기꺼이 즐겨워하는 자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우리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로서 활약할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란 무엇일까요. 최고의 지식은 사회봉사와 인류공헌을 위해 만들어지고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의 공헌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정작 그 지식이 손에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적 혁신으로 만들어낸 그 지식은 그 지식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닿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민족의 동량, 사회의 중심으로 드높은 자부심을 갖되, 자

신의 지식과 열정을 공동선을 위해 공헌하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러 겹의 갈등과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소모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촉매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특별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펼치면서도, 이웃의 주장을 경청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미덕을 겸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웃의 이야기를 더욱 귀담아 듣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화가 늘어나고, 여러분이 향하는 곳에 희망이 늘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7월 20일부터 서울대학교 총장직을 맡았습니다. 오늘의 이 행사는 제가 주재하는 첫 학위수여식이기에, 더욱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맞이하여 저는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교인 서울대학교를 세계 학술연구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제고하고, 세계 대학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식창조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대학교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훌륭한 인재는 지성과 함께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겸비한 ‘선한 인재’입니다. 여러분은 후배들에게 바로 그러한 ‘선한 인재’의 모범을 앞장서서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배의 모범과 후배의 뒷받침으로, 서울대학교가 우리 시대와 사회가 추구하는 발전과 변화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 모두가 서울대학교의 존재를 존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언제나 어머니 품과 같은 따스함으로 영원토록 반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서울대학교 교정에서 쌓아 올린 소중한 인연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면서 모교를 위해 애정을 마음껏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졸업생 여러분과 가정에 축복과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 2. 축사 (총동창회장)

존경하는 성낙인 총장님, 교수와 교직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하신 학부모와 가족여러분!

귀중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정든 캠퍼스를 떠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출발하는  
이제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원이 되신 존경하는 졸업생 여러분!

서울대 35만명 동문을 대신하여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성심껏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  
님과 열정과 헌신으로 미래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20일에는 400명의 재학생에게 총동창회가 장학금을 드렸는데 그 대표로 나온 분  
이 “우리는 꿈과 열정으로 학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답사 했습니다. 수년간의 학업을  
한시도 쉬지 않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식견을 쌓아 나가고 있다는 그 결의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해 나오신 뼈저린 수양이 면면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가 공인하고 존중하고 있는 참된 교육기관이며 여기서 연마된 세계인  
적 역량이 졸업생 개인개인의 이상을 여하히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는 오늘의 끝없  
는 축복과 함께 무한정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행복을 갖습니다.

세계는 지금 역사적 전환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무한정적인 국제경제경쟁, 첨단과학  
기술과 지하자원의 획득이 가위 전시상황을 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으로 있다  
는 것이 인적자원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이 자원마저 고갈하면 뿔뿔로 국가와 사회가 발  
전유지 됩니까? 하물며 지도층을 점하고 있는 인물이라도 보신주의,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선비의 길을 모독하는 행위는 나라가 쇠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러한데 대한 신진대사적 참신한 인재의 새로운 공급원입니다. 서울대인의 가  
치는 지성, 겸손, 봉사의 변함없는 철학을 지니고 꾸준히 대를 이어 실천향상시켜 선진사

회를 조속히 조성해나가는 데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계인의 능력을 이미 지녔습니다.

세계의 지성인과 세계의 미래를 토의할 수 있어야 아시아의 평화가 확보될 수 있는 한반도 문제의 영구설계가 이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세계는 일류대학의 엘리트 졸업생의 놀라운 지성이 국제적 풍운계 역할을 하고 있지요. 미래는 여러분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가야 합니다.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크나큰 통찰력과 구상력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찬란한 결실을 맺어 자유민주평화통일의 길이 열려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8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서정화

### 3. 축사- 성백효 선생

우선 여러분의 졸업과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학자(漢學者) 성백효(成百曉)입니다. 제 스스로 한학자라고 칭하는 것은 낯스름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한문학 박사도 아니고 딱히 신분을 밝힐 만한 것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언감생심 난색을 표했습니다만, 한편 생각해보니 제가 80년도 초에 이 학교 국사학과에서 한문강독을 시작하여 약 15년 동안 계속하였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한 분 중에는 교수로 계신 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강좌를 개설하여 오후에는 학부 학생들을, 야간에는 석박사 과정생들을 대상으로 《논어》·《맹자》와 《통감》·《고문진보》·《시경》·《서경》 등을 강독하였으며, 뒤에는 역사교육학과에서도 강독했습니다.

이때는 전두환 정권이어서 데모가 자주 벌어졌으며, 데모가 있는 날이면 버스도 택시도 일체 교내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길바닥에는 최루탄 가스가 널려 있어 그야말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때로는 뒷걸음질을 하여 좃붙아래 강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연정이 깊습니다.

촌사람인 제가 케케묵은 사교의 한학자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옛말에 ‘무식한 나무꾼의 말도 성인은 가려듣는다.’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열강들에게 짓밟혀 왔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어 일제에게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였고, 열강들의 힘에 의해 해방이 되다보니 남북이 분단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해방둥이입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가난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직 경제만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와 도의정신을 경제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여지없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되돌아보면 우리의 경제 성장이 눈부시게 발전하였지만 과연 우리의 생활이 행복합니까. 이혼과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첫 번째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금이라도 도덕성을 되찾지 않으면 영영 불행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옛날 북송(北宋)의 명재상인 범중엄(范仲淹)은 선비가 조정에 있으면 행여 군주가 잘못할까 걱정하고, 초야(草野)에 있으면 행여 백성들이 잘못될까 걱정한다. 그리하여 천하의 걱

정을 먼저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뒤에 즐거워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선우 후락(先憂後樂)’ 이라 합니다. 정치가는 국민들이 모두 행복하고 나서 행복을 누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보면 올바른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행복은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조대왕 때의 학자인 성대중(成大中 1731~1809)은 《청성잡기(靑城雜記)》 <참된 복>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에는 다섯 가지 등급이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선을 많이 행하고서 부귀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최상이고, 부귀가 좀 부족한 경우가 그 다음이며, 선도 많이 행하고 부귀도 많이 누리는 경우가 또 다음이고, 선은 별로 행하지 않고서 부귀만 많이 누리는 경우가 그 다음이며, 선을 전혀 행하지 않고 부귀만 많이 누리는 경우가 최하이다.……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복의 터전을 쌓는 사람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잘 풀릴 수도 있고 잘못 풀릴 수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여 권력을 잡고 돈을 버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되 성공은 자연에 맡겨 정당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과 지위를 얻었으면 자신이 남들보다 먼저 잘살겠다는 생각보다는 선우 후락(先憂後樂)의 자세가 필요하며,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있어도 있는 체하지 말고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며 겸양해야 합니다. 겉으로 꾸미는 겸양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겸양 말입니다. 《주역(周易)》의 64괘(卦) 가운데 모두가 길한 것은 오직 겸괘(謙卦) 뿐입니다. 겸괘는 바로 겸손함을 말한 것입니다.

《노자(老子)》에 ‘대지약우(大智若愚)’ 라 했습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인다.’ 는 말입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여 오만방자한 태도야말로 자신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논어(論語)》에도 ‘무벌선(無伐善)’ 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잘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품(人品)도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선현들의 이름이나 호(號)에도 ‘우(愚)’ 자가 자주 쓰여졌습니다. 북송의 성리학자인 이천(伊川) 정이(程頤)는 맹자(孟子)를 일러 영기(英氣)가 너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기는 영특한 기운으로 총명하여 머리 회전이 빠르고, 언변이 좋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영기가 없어서 한(恨)입니다. 그러나 이천은 영기를 비판하고, 공자(孔子)의



제자 안연(顔淵)처럼 혼후(渾厚)한 덕을 강조하며, 이것을 옥(玉)과 수정, 얼음에 비교했습니다. 옥은 본래 따뜻하고 윤택한 촉감이 있는 반면 수정이나 얼음처럼 반짝이는 광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영재들이십니다. 총명한 자질과 어느 정도 부(富)를 이미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남을 비판하기 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표본이 되시어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총장님 취임식 때 ‘양사보국(養士報國)’이란 글을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선비를 길러 국가에 보답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겸하여 대학(大學)은 선(善)을 앞장서서 숭선하는 곳이요 선비는 나라의 원기(元氣)이니, 선비들의 취향이 올바르면 나라가 번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원기가 충만해야 몸이 건강하고, 나라는 선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번창합니다.

부디 한 개인의 행복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인간 본연의 심성을 되찾아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복의 터전을 쌓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만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8. 28.

해동경사연구소 소장 성백효